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2022년 4월 26일(화)배포	매 수	총 3매

여가시간 충분합니까? 5명 중 3명은 “NO”

컨슈머인사이트 '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' 여가시간 특성 비교

- 주 평균 여가 28시간으로, 1일 평균 4시간
- 자녀양육 부담, 직업, 나이 따라 큰 차이
- 20대·대학생 시간 여유 많고, 40대·자영업자 빠듯
- 아동기 자녀 둔 부모 평균 21시간으로 가장 취약
- “여가시간 충분하다”는 응답 40%로 절반도 안 돼

우리나라 성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2명에 그쳤다.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여가시간이 가장 적었고, 40대와 자영업자가 그 다음 순이었다. 이들의 여가시간은 주 평균 22~25시간으로 30시간을 훌쩍 넘는 20대, 미혼자와 대학생, 자녀가 독립한 60대 이상에 비해 짧았으며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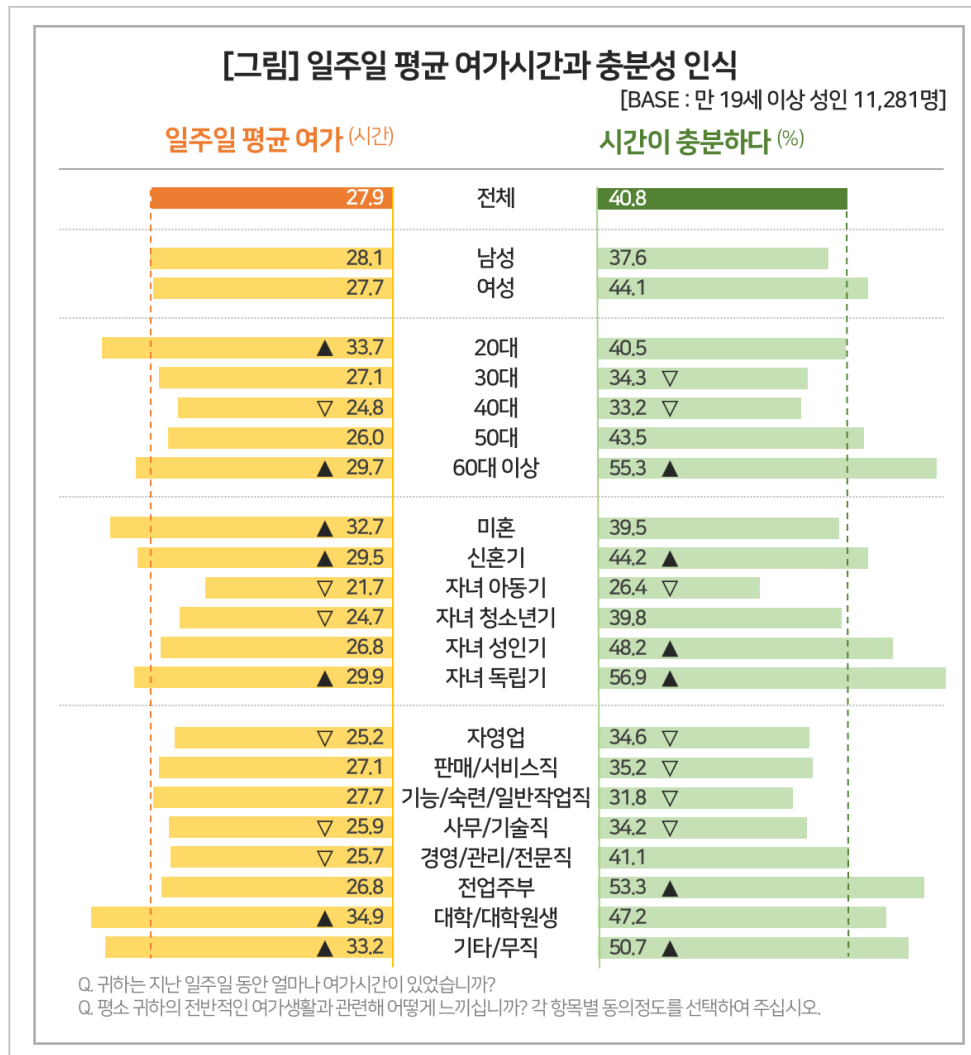
데이터융복합·스마트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 조사를 시작한 '여가·문화·체육 주례조사(매주 500명, 연간2만6000명)'에서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얼마나 되는지, 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6개월간(2021년 10월~2022년 3월) 1만1281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계층별 특성을 비교했다.

■ 하루 평균 여가시간 4시간꼴, 5명 중 2명만 '충분하다'

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은 27.9시간으로 하루 평균 4시간꼴이었으며 이에 대해 '충분하다'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중 2명(40.8%)에 그쳤다. 여가시간에 성별(남성 28.1/여성 27.7시간)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, 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여성(44.1%)이 남성(37.6%)이 보다 많았다.

연령대별로는 △20대가 33.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, △60대 이상(29.7시간) △30대(27.1시간)

△50대(26시간) 순이었으며 △40대가 24.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[그림].



■ 안팎으로 바쁜 자녀 아동기 부모, 여가시간 가장 부족해

40대는 남녀 모두 타 연령대에 비해 여가시간이 적었으며, 여가시간이 충분하다는 인식도 33.2%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. 자녀 양육과 사회활동 모두에서 안팎으로 바쁜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.

직업별로는 △대학·대학원생(34.9시간) △기능·숙련·일반작업직(27.7시간) △판매·서비스직(27.1시간) △전업주부(26.8시간) △사무·기술직(25.9시간) △경영·관리·전문직(25.7시간) △자영업자(25.2시간) 순으로, 대학·대학원생과 자영업자의 여가시간은 주당 1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. 기능·숙련·일반작업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여가 시간이 길었지만, 충분하다는 인식은 31.8%로 가장 낮았다. 이는 높은 육체적 업무 강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.

생애주기별로 보면 △자녀 아동기 가구가 모든 계층을 통틀어 여가시간(21.7시간)이 가장 짧고,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비율(26.4%)도 가장 낮았다. 이는 △자녀 청소년기(24.7시간) △자녀 성인기(26.8시간)를 지나며 계속 늘어나고 △자녀 독립기에 이르면 주당 29.9시간으로 신혼기

(29.5시간)와 비슷해진다. 특히 자녀 독립기의 여가시간 충분성 인식은 56.9%로 자녀 아동기(26.4%)의 2배 이상이다. 미혼자는 시간적인 여유(32.7시간)가 가장 많지만 충분하다는 인식(39.5%)은 평균에 못 미쳤다.

여가시간의 양과 질에서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다. 이들은 여가시간도 가장 적고, 충분하다는 인식도 가장 낮다. 이들의 여가생활을 보면 왜 결혼·출산·육아 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고 경력 단절이 생기는 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. 유소년기 아동을 둔 부모에 대한 배려는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.

컨슈머인사이트는 **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**을 통해 자동차, 이동통신, 쇼핑/유통, 관광/여행,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**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**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**100%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**을 가진 조사 플랫폼 '국대패널'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만 19~69세 남녀 500명(연간 2만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'를 바탕으로 한다. 여가에 대한 관심과 경험, 만족도 등 여가·문화·예술·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해 국민 여가생활의 현황과 추이 변화를 포착, 분석할 수 있다.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

kimmh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43

현소리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

hyunsr@consumerinsight.kr

02)6004-7658